

# 정부R&D참여 중소기업의 재무특성에 관한 연구-폐업기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ed SME in R&D - In case of Closed Company

강문상\*

### I. 서론

#### 1. 배경 및 필요성

'08년 경제위기 이후 OECD 대부분의 국가는 R&D투자활동을 축소하고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을 3.8%로 낮추어 전망하는 등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4).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재정여건 상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벤처, 중소기업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벤처기업·창업 기업 등은 신기술을 상용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OECD, 2014).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16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 목표를 18%로 확대하였다.

중소기업의 역할의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성과는 저조한 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설립 이후 10년 이상 존재하는 기업이 6.3%로 저조한 편이며, 기술료 취득, 사업화 등 R&D 성과 없이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중소기업R&D의 투자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2015.6.16. 미래부 보도자료). 이를 위해 국가R&D투자 측면에서는 적절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R&D참여 후 폐업한 중소기업의 재무정보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R&D투자 효율화를 위하여 정부R&D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의 특징을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정부R&D에 참여기업의 재무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둘째 정부R&D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당기업의 재무정보를 한국신용정보에서 구매하여 연계하였다. 셋째, R&D자금의 지원연도와 폐업연도를 기준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넷째, 생존기업과 폐업기업의 평균분석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 강문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02-589-2879, kangms@kistep.re.kr

## II. 이론적 배경

### 1. 중소기업 지원의 의의 및 현황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목적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있는 ‘기회추구 가능성의 확대’ 그리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회 혁신으로서 기업 경쟁력의 고도화’로 구분할 수 있다(최세경 등, 2014). ‘기회추구 가능성의 확대’는 아이디어 기반의 유명한 벤처·창업 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통해 이루어지질 수 있으며 ‘사회 혁신으로서 기업 경쟁력의 고도화’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해 국가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한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안정’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지원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경쟁영역으로서 중소기업’을 지향한다. 여기에서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은 중소기업을 경제주체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식하고 보편적인 지원을 통해 전체 공동체 발전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쟁영역으로서 중소기업은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양한 경제주체가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건전하게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980년대 초까지 경제개발 계획으로 대기업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중소기업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것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국이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규모의 경제를 쉽게 실현시킬 수 있는 대기업을 집중 지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가 고급화, 개성화 및 다양화의 방향으로 변화되고, 수요자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개성이 있는 상품, 차별화된 상품을 선호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335만개로 한국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87.7%인 1천306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최세경 등, 2014).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 중소기업 등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벤처 기업과 창업 기업은 신기술을 상용화하고 고용창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OECD, 2014).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정부R&D 중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목표비중을 '16년까지 18.0%로 확대하였다.

### 3. 중소기업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현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출연 및 보조는 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 5년간('09년~'13년)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R&D 투자비중은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투자비중은 감소하였다. '13년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비중은 16.9%(중소기업 13.0%, 중견기업 3.9%)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목표비중을 '16년까지 18.0%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09년~'13년) 간 중소기업이 수행한 과제 연구비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대기업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a).

<표 1> 5년간(2009~2013)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현황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정부+민간 연구비	44,873	48,503	52,192	58,132	58,645
정부연구비	15,002	16,353	18,469	20,956	21,926
과제수(건수)	7,110	7,046	6,841	9,086	9,515
과제당연구비	2.1	2.3	2.7	2.3	2.3

투자 증가에 따라 성과도 증가하고 있다.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대비 성과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은 SCI논문과 특허의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투자에 비해 특허기술로사업화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국내출원 특허에서 최근 5년간('09~'13) 연평균 증가율은 중소기업(24.6%)과 대기업(19.6%)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과 국공립(연)은 BB등급 이상이 각각 61.0%, 59.4%로 우수한 편이나, 중소기업은 BB등급 이상이 40.8%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보여주기용 특허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13년도 기술료 징수건수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55.1%로 높지만 기술료징수액은 약 3,200만원으로 38.2%를 차지하여 낮게 나타났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b).

### III. 정부R&D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재무특성 분석

#### 1. 정부R&D참여 중소기업의 현황

동 연구는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 중소기업에 속하여 있는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연구책임자가 속해 있는 중소기업의 재무정보를 한국신용평가(NICE)에서 구매하여 연계하였다.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표준산업분류를 대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2010년 참여기업의 산업분류

구분	정부R&D참여 중소기업		폐업기업	
	Freq.	Percent	Freq.	Percent
표준산업분류				
제조업	3,414	73.98	257	70.80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02	10.88	56	15.4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86	6.20	23	6.34
도매 및 소매업	148	3.21	14	3.86
기타	265	5.75	21	3.57
합계	4,615	100.00	406	100.00

#### 2. 중소기업 수행과제 현황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중 중소기업이 참여한 과제 중 6,383개 과제(약 90.59%)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7,046과제 중에 3,388개(48%) 과제는 단독으로 수행하였으며, 2,995개(42.5%) 과제를 1,227개 기업에서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과제 수행 현황

업력	기업현황		중복수행 과제 현황										
	기업수	비중(%)	1	2	3	4	5	6	7	8	9	10	소계
5년 이하	1,252	27.13	954	227	51	14	3	1	2	0	-	0	1,252
6 ~ 9년	1,074	23.27	786	203	66	13	4	1	0	0	-	1	1,074
10 ~ 20년	1,632	35.36	1,144	340	94	37	10	2	2	3	-	0	1,632
21년 이상	657	14.24	504	102	33	8	6	2	0	1	-	1	657
합 계	4,615	100	3,388	872	244	72	23	6	4	4	-	2	4,615

2010년도 참여한 4,615개 표본기업 중 43개 기업은 흡수되었으며 368개 기업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도에 많은 기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업력·연도별 폐업현황

구분	'11	'12	'13	'14	'15	소계
5년 이하	17	41	45	36	13	152
6 ~ 9년	9	21	25	22	7	84
10 ~ 20년	14	30	31	38	7	120
21년 이상	0	3	3	4	2	12
소계	40	95	104	100	29	368

피흡수 기업을 제외한 368개의 폐업기업의 업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5년 이하 기업이 152개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20년, 6~9년, 21년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368개 기업이 수행한 과제 수는 481개 과제로 2010년도 중소기업 수행과제의 6.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현황은 <표 5>와 <표 6>과 같다.

<표 5> 폐업기업의 업력·수행과제 현황

구분	기업수 (A)	폐업기업 2010년 복수과제수행 현황						폐업기업	
		1	2	3	4	6	7	소계(B)	비중(B/A, %)
5년 이하	1,252	121	23	5	1	1	1	152	12.14
6 ~ 9년	1,074	63	16	4	1	-	-	84	7.82
10 ~ 20년	1,632	91	23	6	-	-	-	120	7.35
21년 이상	657	9	2	1	-	-	-	12	1.82
합 계	4,615	284	64	16	2	1	1	368	7.97

<표 6> 폐업기업의 수행과제 수·폐업연도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소계
1개 과제	36	81	73	78	16	284
2개 과제	3	11	26	16	8	64
3개 과제	1	3	3	5	4	16
4개 과제	-	-	2	-	-	2
6개 과제	-	-	-	-	1	1
7개 과제	-	-	-	1	-	1
폐업 업체수	40	95	104	100	29	368
소계(수행과제수)	45	112	142	132	50	481

### 3. 표본 중소기업과 R&D참여기업의 재무특성

중소기업중앙회는 매년 말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표본추출하여 재무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한다. 동 연구는 2013년을 기준으로 8,000개 중소제조업체를 표본조사한 중소기업재무정보(중소기업중앙회, 2014)와 비교하였다.

중소기업재무정보와 2010년 정부R&D 참여 중소제조기업체의 재무정보 특성을 비교해보면 <표 7>의 A, B와 같다 첫째,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점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은 모두 5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본구성의 안정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비율인 부채비율은 정부R&D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재무정보 보다 약 80% 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증가율은 정부R&D참여기업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율,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은 정부R&D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자본이익율,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정부R&D참여기업이 중소기업재무정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자산회전율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은 정부R&D참여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안정성(부채비율), 수익성(총자본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의 지표에서 정부R&D참여기업이 좋지 않은 것을 보여 주었다.

### 4. 운영기업과 폐업기업의 재무정보 비교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운영기업(<표 7>의 C)과 폐업기업(<표 7>의 D)에 대하여 3년간('07년~'09년)의 재무정보를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폐업기업의 재무정보는 운영기업의 재무정보에 비해서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의 재무정보의 평균분석 결과, 성장성과 효율성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안정성(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고정비율), 수익성(총자본이익율)만이 유의한 값을 보여 주었다. 2009년도 재무정보의 평균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성 지표는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고정비율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 지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운영기업의 경우 비교적 일정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폐업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은 일관되게 상승하고 있으나,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의 변화가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성장성 지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폐업기업의 총자산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이 운영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폐업기업의 총자산 증가율은 운영기업의 총자산증가율에 비해 3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순이익 증가율은 운영기업이 증가 후에 감소한 반면에, 폐업기업은 감소 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수익성 지표에서 총자본이익율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지표의 방향성은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비율을 제외하면 운영기업의 방향성이 일정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폐업기업의 지표는 총자본이익율과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넷째, 효율성 지표는 평균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자산회전율을 제외하면, 폐업기업의 재고자산회전율과 매출채권회전율이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 5. 표본중소기업과 폐업기업의 재무정보 비교

표본중소기업(<표 7>의 A)과 폐업기업(<표 7>의 D)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성은 중소기업 재무정보의 지표가 정부 R&D참여 후 폐업기업 보다 자기자본비율은 높고, 부채비율은 낮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장성은 정부 R&D참여 후 폐업기업이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순이익증가율 모두 나은 값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2009년 총자산증가율은 약 1,119%, 영업이익증가율은 703%가 증가하는 등 이상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은 매출액순이익율을 제외한 총자본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 비율, 자기자본이익율에서 R&D 참여 후 폐업기업의 지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은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모두 R&D 참여 후 폐업기업이 높게 나타났다.

<표 7> 표본기업과 정부 R&D 참여 중소기업의 평균재무정보

분류	항목\Year	2010 정부R&D참여 중소기업														
		중소기업재무정보(A)			전체(B)				운영기업(C)			폐업기업(D)				
		2007	2008	2009(a)	2007	2008	2009	(a)대비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a)대비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39.86	39.13	40.3	42.69	42.73	43.32	↑	44.74	44.88	45.4	40.82***	38.88***	36.12***	↓	
	부채비율	150.86	155.57	148.13	257.74	338.01	268.17	↑	335.67	288.09	240.15	327.44	366	410.68**(-)	↑	
	유동비율	123.06	117.7	126.86	488.74	387.56	338.57	↑	463.22	426.54	344.77	458.28	295.22*	399.05	↑	
	당좌비율	92.34	86.21	98.33	414.92	330.29	263.67	↑	399.4	375.18	279.6	416.11	248.72*	358.19	↑	
	고정비율	128.97	123.32	122.49	180.28	241.21	188.48	↑	246.24	212.04	170.82	217.45	273.11	276.81**(-)	↑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9.01	22.79	4.78	105.87	939.04	222.86	↑	142.33	758.4	193.27	190.91	908.87	121.86	↑	
	총자산증가율	13.56	19.2	12.25	78.41	56.7	174.11	↑	72.56	53.54	75.03	79.1	105.71	1119.99	↑	
	영업이익증가율	11.86	41.56	15.33	185.76	228.85	219.49	↑	258.42	222.13	160.89	486.92	177.09	708.68	↑	
	순이익증가율	2.38	14.88	38.47	242.26	305	209.52	↑	222.22	329.93	213.49	216.65	166.19	187.08	↑	
수익성	총자본이익율	28.94	27.51	25.24	4.07	4.26	4.97	↓	4.01	4.59	5.39	2	1.50*	0.00***	↓	
	매출액순이익율	3.58	3.26	3.97	-219.81	-77.64	-9.45	↓	11.31	11.75	12.28	14.24	6.12*	7.26	↑	
	매출액영업이익율	4.49	5.1	5.61	-230.84	-81.05	-38.58	↓	-179.53	-49.42	-16.27	-238.02	-614.57	-46.31*	↓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 비율	218.37	236.17	252.88	454.52	370.9	687.16	↑	-188.67	-51.2	-41.71	-239.36	-603.36	-47.85	↓	
	자기자본이익율	8.08	7.92	9.14	11.68	11.63	12.08	↑	416.3	380.82	2,929.94	164.14	1.21	-2.48	↓	
효율성	총자산회전율	1.13	1.17	1.09	1.31	1.27	1.15	↑	1.37	1.34	1.24	1.57	1.37	1.2	↑	
	재고자산회전율	9.35	9.05	8.15	58.52	61.39	57.49	↑	91.24	87.84	70.31	75.71	60.95	140.35	↑	
	매출채권회전율	5.66	5.87	5.38	15.58	13.74	13.23	↑	23.77	15.82	13.12	24.48	27.27	33.83	↑	

\*p<0.1, \*\*p<0.05, \*\*\*p<0.01

## IV. 결론

### 1. 결론

본 연구는 2010년도에 정부R&D과제를 수행한 4,615개 기업 중 2015년 5월 까지의 재무정보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Logit, Probit 등의 분석에도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현황을 비교하여 보완코자 하였다.

첫째, 중소기업재무정보(중소기업중앙회, 2014)와 2010년에 정부 R&D 참여기업의 재무정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정부R&D에 참여기업의 안정성(자기자본비율, 당좌비율), 효율성(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순이익증가율)이 중소기업재무정보의 재무상태보다 우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정성 지표(부채비율, 유동비율), 수익성 지표(총자본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는 중소기업재무정보(중소기업중앙회, 2014)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5년 기준으로 운영기업과 폐업기업의 2009년도 재무정보를 평균분석한 결과, 안정성 지표(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고정비율)와 수익성 지표(총자본이익율, 매출액 순이익율)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셋째,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재무정보와 폐업기업의 재무정보의 현황을 살펴보면 폐업기업의 안정성지표(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효율성과 성장성지표는 폐업기업의 재무정보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의 경우, 폐업기업이 매출액 순이익률이 더 우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중소기업재무정보의 상태가 우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정부는 매년 투자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R&D예산배분·조정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R&D투자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국내등록특허(17.5%), 기술료(55.1%), 사업화(58.9%) 등 양적수준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BB이하의 특허등급이 80.4%. 기술료 금액은 38.2%를 차지하는 등 질적 성과는 저조한 편이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b).

본 연구는 정부 R&D에 참여한 기업 중 폐업기업을 대상으로 그 재무정보의 특성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2010년도 정부R&D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비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재무정보는 2013년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2년(2011, 2012)동안 폐업한 기업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중소기업의 폐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4), 「2015 경제정책방향」, 경기도:기획재정부. 2014.12.
- 미래창조과학부 (2015), “신속한 현장착근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 세부실행계획의 확정” 보도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경기도: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a),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경기도: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b),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경기도: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중소기업중앙회 (2014), 「2013년 기준 중소기업경영지표」, 서울:중소기업중앙회.
- 최세경, 오동윤, 최승훈, 박수경 (2014),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당위성과 철학연구”, 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14-23.
- OECD (2014),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4. 6월.